

제1회 한국불교 세계화 국제세미나 주요내용

한국불교 세계화의 대명사인 승산 스님. 승산 스님이 11월 30일 입적한 가운데, '포스트 승산' 시대에 한국불교 세계화를 고민하는 첫 세미나가 12월 14일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 주최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제1회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불교계 해외통인 진월 스님과 미산 스님, 청아 스님 등과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보광 스님, 고려대 조성택 교수, 국민대 이평래 교수, 이동호 박사(발탁연구소장)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을 전망했다.

IT 기반 해외포교 인프라 구축 시급

무엇을 세계화할 것인가
세미나 참가자들은 현대처럼 전쟁이 빈발하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한국불교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조화를 모색하는 '회통불교', '원융불교'적 특성이라고 입을 모았다. 보광 스님은 '한국불교 세계화'에 앞서 한국 불교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한다면서 원효 사상에 기반한 이런 특징들은 불교전래 1600년 동안 호국불교 구국불교 종합불교 통합불교로 몸 바꿔나갔다고 설명했다. 서산대사의 '유심(唯心)', '보조 국사의 '진심(眞心)', 한용

국불교는 새로운 종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집단적 위기에 처한 무기력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평래 교수는 티베트불교의 세계화에서 정치적 배경을 제외시킬 수 없다고 전제하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종교를 이용하는 흐름에 한국불교가 동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그보다는 불교본연의 모습, 현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닌 확고한 내세관을 바탕으로 한 불교 본래 모습을 찾는 게 불교세계화의 첩경이란 것이다.



제1회 한국불교세계화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현대적인 매체로 인터넷의 활용과 한국불교를 전문으로 다루는 국제잡지의 창간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교학의 세계화에 가장 큰 걸림돌은 불교전적 번역 미비라고 설명했다. 미산 스님은 무엇보다 더 한국 학자들의 언어장벽을 극복하는 게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수행의 측면에서는 간화선뿐만 아니라 위빠사나 열불 주력 간경 사경 참회 등 다양한 수행법을 개발하고 알려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한국불교만의 독특한 문화도 세계화에 중요한 요소다. 한국 불교공동체의 결제 문화를 템플스테이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보급하고, 세계 불교문화축제 개최와 국제불교대회 유치를 통해 세계 불교단체와 교류하는 것도 종단차원에서 검토해야한다고 미산 스님은 주장했다.

이동호 박사는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내부 역량 점검'과 한국불교에 대한 '잠재수요' 확인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화는 결국 내부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진 이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한국 불교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승가교육 체계를 정비해야 하며 적당한 커리큘럼 개발, 외국어 교육 실시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아 스님 역시 내부 역량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에서 못하면서 밖에서 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님은 부처님의 법에 근거해 수행가풍을 진지하지 않으면 한국불교 세계화는 단순한 문화교류에 불과하다고 경계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불교전적 번역·인재·국제잡지 등 필수 요소 “한국불교 정체성 찾는 일부터 시작하자” 공감

승 스님의 '남', 용성 스님의 '대각(大覺)'은 이런 한국불교만의 특징들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에 한국불교의 세계화란 이런 것을 알려 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조성택 교수는 통불교, 회통불교는 최남선의 독창적 학설이 아니며, 원효의 화쟁사상과 원융불교론도 사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해석학적 전략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원효 원숙 지눌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연속성 존재 여부도 문제라며 오히려 현대 한국불교의 모습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에서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현대 한

어떻게 세계화할 것인가
한국불교 세계화의 방법에 대해 포교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은 인식을 같이했다. 한국불교전적의 번역, 한국불교를 가르치고 연구할 인재양성, 연구 성과를 알릴 국제학술지와 인터넷 기반 마네편 등이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필수한 이야기다.
미산 스님은 한국불교 세계화의 구체적 방법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스님은 교학 수행법 문화 인터넷 등을 통한 세계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들을 현대 미디어와 결합시키는 방안, 이 일을 실행할 인력 양성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한국 불

음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상징으로 여겨진다.
수행자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해탈을 의미한다. 탐진치 삼독을 소멸하고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자의

력에 흠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보통 원로 스님이 입적하면 임종계가 발표되고, 다비식 후에는 사리가 수습된다. 문도들은 이를 통해 은사 스님을 빛내려 하고, 세인들은 여기에 매달린다. 그러다 보니 이따금씩 신비화되는 경향도 없지 않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선사들의 열반이 형식주의에 흐르고 있음을 경계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굳이 치장하지 않아도 진정한 수행자의 삶 자체는 중생의 사표가 된다. 욕망과 고통, 번뇌를 끊고 영원한 적멸에 드는 열반은 우리 모두의 목표이며, 그래서 큰스님들의 삶과 죽음은 어떻게 살고 가야할지를 보여주는 귀감인 것이다.

한영문 기자 mwihan@buddhapia.com

큰스님 입적이 갖는 '의미'는 ...

지난 11월 입적한 조계종 원로 석주 스님의 입적을 놓고 뒷말이 많다.
석주 스님이 입적하자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아산 보문사에서 입적했다고 공식 발표했고, 장례위원회도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뒤늦게 교통사고로 입적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한 언론은 "원로 스님의 입적을 '포장'해서 신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공식 보도자료가 나간 뒤에 교통사고로 입적하신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굳이 밝힐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의도적인 포장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불교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큰스님'으로 존경받았던 석주 스님의 열반 발표에 대한 '포장' 여부를 두고 이렇게 뒷말이 나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근세의 고승인 한암 스님과 만암 스님이 좌탈에 들었고, 지난해 입적한 서운 스님의 좌탈 역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오랜

좌선수행을 한 스님들은 그 모습 그대로 죽음에 들며 생과 사가 틀어 아픔을 보여 준다. 지난해 입적한 청화 스님이나 1980년대에 입적한 운허 스님과 취봉 스님은 입적을 예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정진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사들의 죽

죽음에는 삶의 무상함을 일깨워주면서 한 시도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담겨있다.
석주 스님이 교통사고로 입적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밝히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제자들이 은사 스님의 수행

한국의 비구니 스님 <25> 묘희 스님

가난한 이들과 늘 함께

경기도 화성의 자제공덕회 '묘희원' 찾았을 때 묘희 스님(69)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기사를 맞았다. 1980년대 말 누구보다 먼저 불교계 노인복지현장에 뛰어든 스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운 모습이었다. 아무런 말씀 없이 환한 미소로 기사를 반긴 스님은 2차례 수술을 받았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안정을 취해야하는 상황이었다.

묘희 스님은 1936년 경북 점촌역 부근에서 시계방을 운영하시던 아버지 이춘식 거사의 무남독녀로 태어났다. 불심 깊은 부모님이 기차시장을 놓친 인근 봉암사, 김용사, 대성사 스님들을 집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아 스님도 자연스레 불연을 맺었다. 이무렵 성철 창당 향곡 스님 등 당대의 젊은 선지식들도 묘희 스님의 속가에서 신세를 진 일이 흔했다고 한



만나면서부터다. 묘희 스님은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던 이상을 먼저 실천에 옮긴 정연 스님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89년 경기도 화성에 지금의 부지를 매입해 이듬해 한국 불교 자제공덕회를 설립했다.

자제정사는 91년 '노후수도도

자제공덕회 설립... 할머니 80명과 생활 "자비 행하며 이름 떨치길 바라면 안돼"

그런 탓인지 스님은 조금의 망설임 없이 초등학교를 마치자마자 14살 어린나이에 율림암의 율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51년 자은 스님으로부터 사미니계를, 이듬해에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몇 해 지나지 않아 스님의 부모도 속가집을 모두 정리하고 두 분이 각기 다른 곳에서 출가해 온 집안이 불문에 귀의했다.

동학사 강원 시절 스님은 한국 전쟁 와중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보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는 큰 서원을 세웠다.

74년 신림동 약수암 주지를 맡으면서 중앙승가대에서 3년간 학감으로 재직했다. 83년부터 10년 동안 사당동 시립유아원을 운영하면서 전국비구니회에서 소임을 맡기도 했다. 한창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하면서 조계종 제8대 중앙총회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스님이 본격적인 사회복지사업에 뛰어든 계기는 86년 대만 자제공덕회의 정연(證嚴) 스님을

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 이곳은 단순수용시설이 아니라 스님들과 할머니들이 함께 수행하는 '도반'처럼 살아가는 곳이다. "자비는 봉사가 아니며 이름이 나기를 바라서도 안된다"는 묘희 스님의 평소 말씀대로 모든 구성원이 수행과 생활을 병행하며 살아간다. 가난한 살림을 나누고 도우면서 꾸준히 성장해 지금은 80명이 넘는 할머니들과 스님들이 생활한다.

자제정사가 안팎으로 알려지면서 날이 갈수록 들어가는 여르 신들을 감당하기 위해 봉사가 계속됐다. 그러나 가난한 노인들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스님은 점차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일에 소홀했다. 일생을 포교와 사회봉사에 헌신하다가 건강을 잃은 스님은 <법화경>에 의지해 기도해 매진하고 있다. 이제 스님을 바라보는 많은 이들은 "묘희 스님은 이제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 가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화성=조용수 기자

불교의식(범음·범패·작법) 학인모집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에서 아래와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1학기 범패·소리과정: 기본 불공의식, 사심구제, 천도제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사심구제·천도제·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2학기 작법·무용과정: 나비춤, 사방요신, 다계작법, 도량계작법
바라춤 - 요잡바라, 관음계바라, 천수바라, 사다리나바라

강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작법부 보유자 박일초스님 직강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 개강일시: 2005년 3월 8일(화요일) 오후 2시
■ 모집인원: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요일: 화·목·오 3시~5시
■ 접수기간: 2004년 12월 20일 ~ 2005년 2월 28일까지
■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본원은 초정과 교육원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어렵게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대불대학교(4년제 종합대학)

전통연희학과(범패·작법반) 신입생모집 정식 "가"군 모집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에서 대불대학교 전통연희학과(범패·작법반) 신입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20명 (범패·작법 및 전통무용의 특기자 스님 및 포교사, 재가불자 우선 선정)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2005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위 학력 소지자로서 전통예술에 관심이 있는 자)
- 특별전형: 무시험, 서류전형
- 입학특전: 1.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불교의식 범패·작법(바라춤, 나비춤, 범고춤)을 비롯한 전통무용과 풍물을 체계적으로 지도 받을 수 있음
2. 졸업 시 정규대학(대불대학교) 4년제 학사학위 취득
3. 졸업 후 대학원 진학 및 외국대학 유학가능
4. 졸업과 동시에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지정 받을 수 있음
- 지원서류: 입학원서 1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 접수기간: 2004년 12월 22일부터 27일
- *전통연희학과(범패·작법반) 모든 상담 및 접수는 본 문화원에서만 가능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본 문화원 홈페이지 게시판 (조회) 2005년 1월 14일
대불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조회)
- 합격통지서 교부: 대불대학교 입학 홍보처 (개별 합격 통지서 발송 - 등기우편) 2005년 1월 14일

●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2-4호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굴다리 방향으로 5분 거리) ● 전화: (032)529-6708 / FAX: (032)529-6709
● 대불대학교 전통연희학과 조교실: 061)469-1385 / H·P 018-453-0308
● 홈페이지: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 <http://www.bumpae.org> 대불대학 <http://www.daebul.ac.kr> 입학 홍보처 홈페이지 주소 <http://iphak.daebul.ac.kr>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